

自由主義의 哲學的 解明④

朴致祐

그러나 이것을 亦是 곰곰이 생각만 해본다면 그다지 □□한 □□는 아니라 하겠다. 웨인가하면 『로부터의 自由』나, 『에로의自由』로 結局은 市民을 『爲한 自由』로서만 비로소 그의 存在理由를 가질 수 있을 터이니까. 그러타면 自由가 오늘에와서 市民을 爲한 自由가 못되는 限, 解□ 또한 不可避한 일일 수밖에 업지 안흔가!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가튼 事實을 알아야 한다.-自由主義란 元來부터 市民의 □兵 以外の 아모것일 수도 업섯다는 事實을! □兵은 □□條件만 解消되면 그의 存在理由를 喪失하는 法이다. 自由主義는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普日의 □□하든 比할 길조차 업는 慘憺한 꼴로 마치 白露將校의 動□과도 가티 겨우 몇 사람의 □□스러운 『인테리겐차』의 여원 가슴에 매여달려 그의 遊骨의 保存이나마 期하게 된 것이다. 『學文의 自由』·『大學의 自由』只今도 亦是 찾고잇는 열빠진 몇 사람의 敎□들이야말로 가장 同情에 □할 이들 白露將校라고나 못할 것일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들만은 平安한 죽이다. 비록 完全히 無力化한 自由主義의 虛器일망정 그래도 如前히 『學文의 自由』·『大學의 自由』를 웨치고 잇는 點으로 推測컨댄 아직은 生存만은 保存되여 잇슴이 確實하니까.

그러나 危機에 直面한 오늘의 市民-뫼쇼化된 市民에게는 自由主義는 벌서 單純한 處具라는 程度를 지나서 인제는 實로 □□으로化한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間이自由主義의 骸骨마저 깨끗이 □□하고야 말 것은 明□한 事實에 爲하고야 말 것이다. 어찌든 自由主義는 오늘에 와서는 벌서 單純히 市民과 □□되였다는 程度를 지나서 敵의 陳營에 實로 『追放』되고 만 것이다. 『과시즘』的 □□은 如何한 自由主義로 그의 同□로서 計算함을 許하지 안는 것이니까. 數年來로 佛蘭西 知識□□을 中心으로 내려난 興味잇는 一種의 自由主義運動은 이 가튼 切迫된 情□가 強迫한데 起因된 知□人 決死

的인 反□이라고나 못할 것일까? 우리의 觀察에 依할진댄 그들은 自發的으로 反팍쇼 陣營에 加擔하였다가 보담은 實相은 역지로 『追放』·『投入』되었든 것임에 不過하였든 것이다. 이 只今은 아모려한 쓸모조차 업는 小市民, 半市民 마저 自身の 反對物에 追加함을 完了했음을 意味한다는 點에서 興味잇는 事件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附言하고 심흔것은 이러한 □치 못할 過程을 밟어 나 종에는 反팍쇼 陣營에 投入하고 말게 된 이 末期 自由主義의 決死的인 反□은 그러나 一部에서 생각하듯이 그처럼 지나치게 評價할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 『反팍쇼』이라고 할 때의 이 『反』字의 透明차 못한 性質에 적어도 留意할 必要만은 잇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運動에 參加하고 잇는 分子들의 志向이 混□으로 보아 그다지 □□한 評은 아닐듯 싶다. 가장 積極的 進步的이라는 『지-드』의 所謂 『個人主義的 左□主義』만을 窺코 보더라도 이것과 本格的 左□主義와의 사히에는 적어도 新義州와 安東□사이에 比할 距離만 이래도 업슬 것일까? 新義州와 安東□은 經驗잇는 諸子라면 짐작하려니와 □的으로는 겨우 다리하나를 사이에 두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나라와 나라의 區別만은 가지고 잇다는 點에 對해서 特히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타고 우리는 이 運動이 가지는 바 積極的인 一面에는 盲目이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堂堂한 反팍쇼의 運動으로서 末期 自由主義가 보여줄 수 잇슬 最上의 反□인 것이 事實이니까. 어째든 이와 類似한 □向의 運動이 今後 知識人들 사히에서 날로 數를 加하여갈 것만은 여기서 斷言해도 無妨할듯 십다.

×

以上은 自由主義라는 하나의 『이즘』의 誕生으로부터 오늘에 나르기까지의 □□한 運命에 關한 關한 相□한 □□이다. (完)